

목차

해방화폐 소개 및 현황분석 2p

해방화폐가 시작된 배경과 5개월 동안의 추진 현황, 우리의 고민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방화폐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9p

해방화폐 시작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해방화폐의 길을 물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합니다.

과천품앗이 15p 은평 e품앗이 18p

앞선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과천과 은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례를 함께 듣고 해방화폐의 앞 날을 상상해보려고 합니다.

해방화폐 소개 및 현황분석

첫 시작

2013년 11월 9일, 신흥시장 상인회와 동네 주민들이 모여 '신흥시장 바자회'가 개최됐다. 해방촌 골목 경제를 살리고 수익금은 해방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였다. 이 뜻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물품을 기부했고, 판매 수익금 108만원이 모였다. 운영비 총당분을 제한 90만원이 해방촌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수익금을 전달할 것인지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던 중 '해방화폐'에 대한 안이 제시됐다. 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수익금은 다시 해방촌 지역내에서 소비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안이었다. 이를 계기로 해방화폐가 지역화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다.

해방화폐가 운영된지 5개월이 지났다. 골목경제 활성화, 새로운 관계맺기 시도,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궁리 등 해방화폐에 담긴 욕구는 다양하다. 해방화폐로 어떤 가능성을 실험해 볼 것인가? 해방화폐 공개 세미나를 통해 현황을 정리하고 깃발을 다시 세워보고자 한다.

해방화폐가 걸어온 길

- 2013.11.09 제 1회 신흥시장 바자회 개최 - 해방화폐 씨앗기금 생성(판매 수익금)
- 2013.11.14 해방화폐(안) 협의 - 제 1회 신흥시장 바자회 평가회의
- 2014.04.24 해방화폐 운영계획 검토 및 협의
- 2014.04.28 해방화폐 가맹점 모집 완료
- 2014.04.28 제 1회 해방화폐 설명회 개최 - 운영계획 공유 및 피드백 : 동네이웃 10여명 참여
- 2014.05.20 가맹점 방문 및 해방화폐 운영 관련 설명
- 2014.05.22 해방화폐 제작 완료
- 2014.05.23 해방화폐 온라인 사이트 오픈 : <http://haebang.net/money>
- 2014.05.22 해방화폐 발행 1차 - 해방촌 성당 (수령자_빈첸시오 회장, 규모_48만 해방)
- 2014.05.23 해방화폐 발행 2차 - 해방촌 교회 (수령자_충남정육점 사장, 규모_42만 해방)
- 2014.05.24 해방화폐 발행 3차 - 제 2회 해방촌 마을장 (규모_약 700만 해방)
- 2014.06.17 움직이는 환전소 1차 - 해방화폐 설명 및 환전
- 2014.06.26 해방화폐발행위원회 발족
- 2014.06.26 가맹점 스티커 제작 완료 및 부착
- 2014.07~10 움직이는 환전소 및 가맹점 확대

2. 해방화폐 운영구조

조직구성 및 역할

지난 6월 26일, 해방화폐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해방화폐발행위원회> 정식 발족했다.

- 발행위원장 : 박일성 (신흥시장 상인회 회장)
- 감사 : 방춘만(충남정육점 사장), 이영우(해방촌성당 신부), 김윤진(공동체은행 비고)
- 사무국장 : 배민혜(해방촌 사람들)
- 활동가 : 김오디(해방촌 사람들), 김현진(해방촌사람들)

주요 활동은 ▲ 해방화폐 기획 및 운영 ▲ 해방화폐 유통 및 환전 현황 파악 ▲ 움직이는 환전소 운영 ▲ 가맹점 모집 ▲ 해방화폐 운영방향 논의 ▲ 홍보 및 교육 등이다.

해방화폐 발행 및 유통 구조

해방화폐는 비회원제로 진행되며 누구나 해방화폐를 사거나(발행), 현금으로 교환(환전)할 수 있다.

- **교환가치** : 대략 '1원 = 1해방'의 교환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현금과 달리 특별한 가치가 보태질 수 있다.
- **발행방법** : 신흥시장 상인회, 카페해방촌 빈가게를 통해 발행과 환전을 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거스름 돈으로 해방화폐 받는 방법도 있다. 교환처에 갈 필요 없이 옆에 있는 이웃, 가맹점에 들어가서 해방화폐를 살 수도(발행) 있다.
- **사용처** : 해방촌 지역 내 상점 46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이용자 스스로 사용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용자 중에는 해방화폐를 선물처럼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동네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해방촌을 방문한 손님에게도 해방화폐는 좋은 선물이 된다.
자신의 일손을 도와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해방화폐는 누구나 직접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다.
- **가맹점 신청하기** : 수제물품, 개인의 노동력, 상점 등 누구든지 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가맹점

가맹점 현황

월별	5월	6월	7월	8월	10월	총
가맹점 갯수	+ 33개	+ 8개 - 6개	+ 2	+ 3개	+ 6개	46개

- 신홍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기획됨으로써 초기 33개 가맹점을 확보한 채 출발할 수 있었다.
- 해방화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후, 6개 가맹점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귀찮아서, 해방화폐 사용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등
- 해방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점에서 해방촌 상점들이 쉽게 해방화폐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다.
- 신홍시장 내 상점으로 시작되어 해방촌 오거리로 가맹점이 확대되고 있다.

업종/업태별 가맹점 현황

업종/업태	가맹점 수	업종/업태	가맹점 수	업종/업태	가맹점 수
게스트하우스	1	슈퍼	1	정육점	2
꽃집	1	식자재	5	제과제빵	1
문구류	1	안경점	1	주류전문	1
미용	2	약국	1	침구류	1
반찬류	1	은행	1	카페	4
방앗간	1	음식점	1	과일/야채	4
분식류	6	의류	1	화장품	1
웃수선	1	잡화	1	업종/업태 총	23가지

- 해방화폐가 운영된 뒤 ‘꽃집, 문구류, 약국, 슈퍼, 제과제빵’ 가맹점이 추가되어 품목이 다양해졌다.
- 초기 33개 가맹점은 화폐 뒷면에 기재하여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상점명 만으로는 가맹점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스티커 부착 작업을 진행했다.

4. 통화량

전체 유통 현황

해방화폐발행위원회 - 발행규모

월	발행규모	비고
05.24	약 700만 해방	마을장터 당시 약 700만 해방 발행
05.26	약 140만 해방	마을장 후,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은 금액
06.27	약 49만 해방	이웃들에게 배포된 해방화폐가 사용됨으로써 발행 규모가 줄어들음 (대신 화폐가 유통됐다고 해석할 수 있음)
07.30	약 107만 해방	인건비로 해방화폐를 사용하는 곳이 생기면서 발행 규모가 늘어남
08.31	약 130만 해방	해방촌 축제에서 해방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발행량이 증가함
09.24	약 154만 해방	해방촌 성당에서 해방화폐 발행 시작
10.26	약 180만 해방	해방촌 성당에서 해방화폐 발행 시작

가맹점별 유통 현황

범위	가맹점 수	유통규모(월)	비고
월 21만 해방 이상	4	약 80만 해방	과일*야채 / 카페 / 은행 / 주류
월 11-20만 해방	2	약 30만 해방	슈퍼 / 음식점
월 5-10만 해방	6	약 30만 해방	주류 / 과일*야채 3곳 / 정육점 / 게스트하우스
월 1-4만 해방	16	약 20만 해방	비 정기적으로 해방화폐 유입
총 유통규모	28	약 160만 해방	

- <발행 규모>란 사람들이 해방화폐를 얼마큼 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 발행된 해방화폐는 여러개의 가맹점을 거쳐 다시 해방화폐발행위원회로 유입된다.
즉, <유통 규모>는 발행 규모보다 더 크다는 얘기다.
- 하지만 실물화폐 특성상 유통 경로를 100%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생활에 자주 쓰이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해방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슈퍼가 가맹점이 된 후, 가맹점들의 해방화폐 재사용 빈도에 변화가 있었다.)

5. 이용자

이용자 유입 계기

- 마을장을 통해 해방화폐 사용 경험의 기회 마련
: 2014년 5월 마을장에서 모든 거래를 해방화폐로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방촌 이웃들이 해방화폐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다.
- 해방촌 성당 이웃돕기
: 월 40~50만원 정도를 '해방'으로 교환하여 동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다.
- 인건비 지급을 통해 해방화폐 재유통
: 공동체은행 빙고, 해방촌 사람들, 빈가게 등 유입된 해방화폐를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인건비 일부를 해방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 카페해방촌 빈가게(교환처)의 사용 권유
: 카페 마스터들이 해방화폐 의미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설명하거나 거스름 돈을 해방화폐로 돌려 주거나 재사용 권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가맹점들의 재사용
: 가맹점 46곳 중 이용자로서 재사용한 곳은 약 10개에 불과하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되도록 마을내 가게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는, 해방화폐에 대한 인식이 변할 경우, 가맹점들이 적극적인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방화폐 이용 사례

- **가맹점을 스스로 확장시키는 '이용자'**
가맹점이 33개에서 46개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이용자'들 덕분이다. 가맹점 표시가 되지 않은 곳에서 해방화폐를 당당하게 내밀며 사용 가능한지 물으며 관계 맺기를 시도했다.
- **해방촌 외부에서도 해방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친구 돌잔치, 추석 선물, 감사의 표시, 타지역 방문시 선물 등 해방화폐의 쓰임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한 화폐 기능을 넘어서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장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6. 해방화폐 사용 의견

해방화폐 정체성을 생각해보기 하는 의견

- ‘현금과 차이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직 상품권 같은 느낌이 강하다.’
-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 가맹점 위주 소비 말고 품앗이 교환을 하고 싶다’

해방화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

- ‘지역에 가맹점을 더 개설해야한다.’ ‘받아주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
- ‘가맹점 눈치가 보인다’ ‘사용시 가게에서 반기는 것같지 않아서 쓰기가 꺼려진다’
-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데, 해방을 구입하려고 빈가게까지 가는 것이 귀찮다. 굳이 교환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 ‘해방화폐 이용자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 ‘움직이는 환전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 ‘지급보증에 대한 신뢰감 확보가 필요하다.’
- ‘가능하다면 조금 더 밝은 인상의 디자인, 덜 뻗뻗한 재질로 이뤄지면 좋겠다.’
- 인식개선 및 홍보 : ‘사람들에게 해방화폐의 생성배경, 이유, 좋은점 등을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가맹점에 제공하면 좋겠다.’

해방화폐의 한계

- 지역’내’에서만 소비 : ‘지갑속 전재산 1만원 중 5천원이 해방이면 마을 밖에선 쓸수없는 돈이 되어서 급할때 불안하다.’ ‘현금 보유고가 많지 않을 땐 부담스럽다.’

7. 우리의 고민

해방화폐를 쓰는 것의 의미

- 이용자들에게 해방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가맹점들에게 해방화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단계인가?

- 다음번 과제는 무엇일까?
-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유통량 = 화폐량 * 순환속도

- 화폐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 순환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인가?
- 유통량을 넘어서 유통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이용자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가맹점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운영구조

- 해방화폐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를 장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방화폐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지음 (공동체은행 빈고 감사)

0.

해방화폐의 실험은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폐입니다. 지역화폐의 실험은 국내에서는 몇 군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사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해체된 각박한 서울의 한 북판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투자해서 시작한 지역화폐도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경우가 수도룩합니다. 사실상 자원 활동만으로 이렇게 온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한 동시에, 그만큼 그동안 수고해온 사람들의 열정과 노동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마을의 청년들과 상인들이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돈독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시작하게 마련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지만 관계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청년들과 상인들이 만나기 시작해서, 빠른 시간에 40여개가 넘는 가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넷째, 마을 청년들의 자치적인 공동체은행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없는 원화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해방화폐를 보조하는 은행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지역화폐도 지역은행과 결합된 적은 없습니다. 이 둘이 일으킬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뿌듯해하셔도, 스스로 대견해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 혼자서 이리저리 상상하면서 실패만 반복해온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저 존경한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실망한 적이 많으셨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만, 느긋하게 즐기면서 자신감을 갖고 한 번 더 힘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1. 해방

우리는 왜 해방화폐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 편한 원화를 쓰지 않고 해방화폐를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해방화폐가 아니라 원화의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세계 어디를 가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달러가 아니라 원화를 쓸까요? 원화를 폐지해버리고 달러를 쓰기로 국민들이 결정한다면 못 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차피 다 같은 돈인데 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돈을 쓴다면 좋은 점도 많겠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경제학자가 아닌 이상 잘은 모르겠지만, 그다지 상상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러를 쓰는 더 큰 가게로 몰려갈 것이고, 그렇게 쓰여진 달러는 미국으로 집중되겠지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해방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화폐는 결국 원화를 쓰면 빼앗기게 될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해방촌 마을일 것입니다. 대형 마트가 편하고 싸고 물건도 좋고 친절하다면 해방촌 가게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인간관계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맨날 보는 가게 사장님이 해방촌에 계속 장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굳이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을 다시 한 번 만나고 싶다는 것, 이웃 가게와 이웃들과 함께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관계가 없다면 만들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방화폐를 쓰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가 해방화폐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서울

해방촌이 서울의 한 북판에 있다는 것은 지역상점과 지역화폐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이태원과 숙대입구라는 유흥가가 있고 용산역에는 이마트가 서울역에는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30분만 나가면 종로와 명동, 강남과 홍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해방촌 신흥시장이 쇠락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사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하루종일 해방촌에만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해방촌 바깥을 나가야 하고 나가서 쇼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촌 바깥에 더 싸고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굳이 나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때문이라도 더 해방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조건에서 해방촌 주민이 해방화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유혹에도 불구하고 해방촌의 상점들을 이용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촌 가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하더라도 생각만으로는 여러 유혹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미리 해방화폐로 환전해두는 것은 이러한 결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한북판에 있다는 점을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방촌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방촌을 소개하고 해방촌에 한번쯤 놀러 올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기념품처럼 해방화폐를 주거나, 선물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해방화폐를 선물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해방화폐는 돌아오면 선물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아도 선물한 사람이 해방화폐발행위원회를 후원하는 셈이 됩니다.

3. 이용자

해방화폐를 쓰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분명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용자는 해방촌 가게들을 살리자는 대의에 동의하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받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해방화폐를 받을 때 원화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누게 되면 좋겠지요. 해방화폐로 해방촌 가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에게 기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더 자주 가게를 방문하고, 더 많은 원화를 해방화폐로 환전해서, 해방촌 가게들을 더 이용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지요. 이용자들도 해방화폐를 받아주는 가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 좋겠지요.

두 번째는 이용자가 환전할 때 충분한 보람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가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해방화폐를 원화로 환전할 때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해방화폐의 가치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가치에 동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환전을 통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환전해서 해방화폐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면 다음번에는 굳이 환전하지 않겠지요.

세 번째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가맹점일수도 있고 화폐 발행위원회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맹점은 해방화폐를 내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나 서비스나 에너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화폐발행위원회는 환전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0해방을 9700원에 환전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3%를 할인해주는 것이지요. 모든 해방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5만 해방 이상을 환전할 때만 한다면, 특정 기간 동안만 상한선을 정해서 환전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 1000만 해방을 환전해서 유통시킨다면 필요한 비용은 3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별도로 모금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실되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해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큰 비용은 아닐 것입니다.

4. 운영

지금은 사실상 자원활동으로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한 사람의 활동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체적인 수익모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화폐들이 쓰는 방식은 이용자들이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통장기록식 지역화폐여서 회원이 분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해방화폐는 이용자가 확실하지 않은 화폐로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후원회원을 모집한다거나 기부를 받는 방식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요.

두 번째는 보통 카드회사나 상품권회사, 포인트회사가 하는 방식처럼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해방화폐는 가맹점이 분명하고,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인만큼 이 방식을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가맹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고, 이왕이면 가맹점들이 직접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은 원화를 받고 화폐를 발행해서 그 화폐가 유통되다가 다시 원화를 결제를 해주는 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원화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발행된 해방화폐가 유실되어 돌아오지 못할 때 생기는 부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적을 때는 세 가지 모두 보잘 것 없는 수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무엇보다도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도 급선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부적인 수익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외부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지요. 각종 프로젝트나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후원금이나 일일호프를 통해 활동비와 경비를 충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통화량

아직은 해방화폐의 통화량이 200만해방에 불과해서 그 힘이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1000만해방만 넘어가도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해방이 한달에 두 번정도만 회전한다고 하면 2000만 해방이 40개 가맹점에 매출로 잡히는 셈이니까 한 가게당 50만원의 매출이 해방으로 발생합니다. 이 정도면 해방촌의 가게 규모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묵혀져있는 해방도 있을 테니까 계산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넘기면 해방화폐를 쓰는 것이 가맹점 입장에서 귀찮은 장난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해방화폐를 쓰지 않던 가게들도 가맹점이 되려고 하겠지요.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도 가맹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수입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면 이용자들이 더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1000만 해방이 발행됨으로써 1000만원을 발행위원회가 보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지요. 지금 세부적인 정책이 맞나 틀리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양적인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낼 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성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기획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자금

해방화폐만으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한 시도입니다. 거래기록을 남기는 통장기록식 지역화폐와 달리 실물 화폐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 수 없어서 거래의 기록과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기록과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용자들이 각자 어떤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외부로 진행과정을 생중계해도 좋고, 멤버끼리 모여서 경험을 나눠봐도 좋고, 수기 형식으로 정리해서 소식지 등으로 알려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나 시중은행 거래 없이 계획적인 소비를 하며 살아보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는 개인 삶의 모든 영역을 지역화폐로 해결해보겠다는 실험인데, 이는 다른 어떤 지역화폐에서도 엄두도 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고 큰 불편없이 앞으로도 쪽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일부분에서는 해볼만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삶의 상당 부분을 원화가 없어도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다양한 옵션이나 인센티브나 세부물은 참여자끼리 같이 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진행해보면 '인간의 조건' 같은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노력이 상당할 것인바 사업비를 충분히 투자해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7. 가게

해방촌 주민들이 해방화폐를 이용해서 해방촌 가게를 살림으로써 해방촌을 위한 일을 한다면, 해방촌 가게는 무엇으로 해방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해방촌 주민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해방촌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보답이 없겠지요. 해방촌 주민이 잘 살아야 가게도 잘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방촌 주민이 되어야 가게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촌 가게 주인 분들도 다른 해방촌 가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방촌에서 돈을 벌지만 해방촌에서 돈을 쓰지는 않으면, 결국 그 돈은 모두 해방촌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다른 해방촌 가게가 문을 닫으면 혼자만 잘 될 수는 없지요. 해방화폐를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환전해서 다른 데 가서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다른 곳에서 사다면 이왕이면 해방화폐로 해방촌의 다른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미리 해방화폐를 거스름돈으로 이용자에게 줌으로써 다시 가게를 찾거나 해방화폐를 쓰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해방촌의 가게들과 협력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인회도 좀 더 힘을 내서 해방촌 상인들 다 같이 살아보자고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상인회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가게들에게도 문을 열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상인들이 단합하기만 한다면 해방촌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금방이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가맹점에서 받은 해방화폐를 되도록 다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맹점에서 해방화폐를 원화로 환전할 때 약간의 수수료를 두는 것은 위원회가 그걸로 수입을 얻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고민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8. 은행

렛츠와 같은 통장기록식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화폐를 자신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고 -계정으로 기록된 통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이 화폐를 발행한 셈입니다. 자기가 당장 돈이 있는게 아니어도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계정을 0으로 맞추려면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겠지요. 이것은 상당한 장점입니다. 국가만 할 수 있는 화폐 발행을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해방화폐도 당장 해방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일단 먼저 해방을 벌거나 환전을 한 후에야 쓸 수 있지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렛츠의 단점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어느 정도는 단어와 감각의 차이입니다. 렛츠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나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은 개인에게는 수입이고 이것은 맘대로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국가는 일단 화폐를 발행하고 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만 관리하면 되지 직접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렛츠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만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에 버는 돈은 -계정부터 다 메꾼 후에야 +로 넘어갑니다. 이건 실제로는 대출받고 상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이 즉각 대출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상환이 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받고 상환해야 한다는 단어와 감각이 주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방화폐의 경우도 이와 같은 장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당장 원화가 없어도 해방화폐를 발행하고 나중에 발행한 만큼 해방으로든 원화로든 채워 넣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누가 발행하는가가 기록되고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없이 해방화폐를 발행해야하므로 돈을 유통할 수 있는 은행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해방화폐는 그동안 어떤 지역화폐도 없었던 함께하는 은행, 공동체은행 빈고가 있습니다. 빈고가 소액에 한해서 해방화폐를 즉각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면, 각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해방화폐는 누구든 회원 가입없이 쓸 수 있는 화폐이므로 이용자 모두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빈고의 조합원이거나 해방화폐 가맹점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방화폐에 대해서는 무심사 무이자로 즉각 대출을 하는 것이

지요. 가맹점에도 예를들어 10만해방을 미리 주고, 나중에 10만해방을 회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해방이나 원으로 10만해방을 반환해도 되고, 자기가 직접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거스름돈으로 줘도 되고, 10만해방을 그냥 갖고 있다가 돌려줘도 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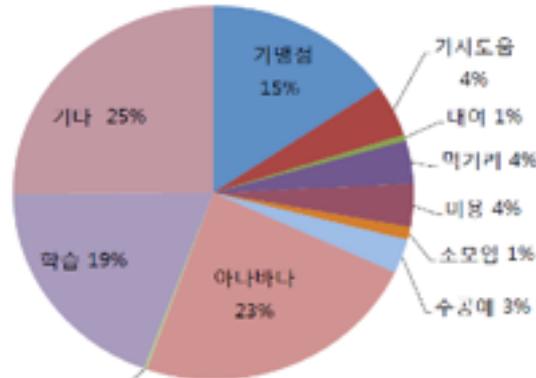
이러한 방법은 다소 낯설 수는 있지만 편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화폐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부채로서 돈이 발행되는 것이고, 돈이 곧 부채입니다. 국가화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감추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국가와 은행이야 말로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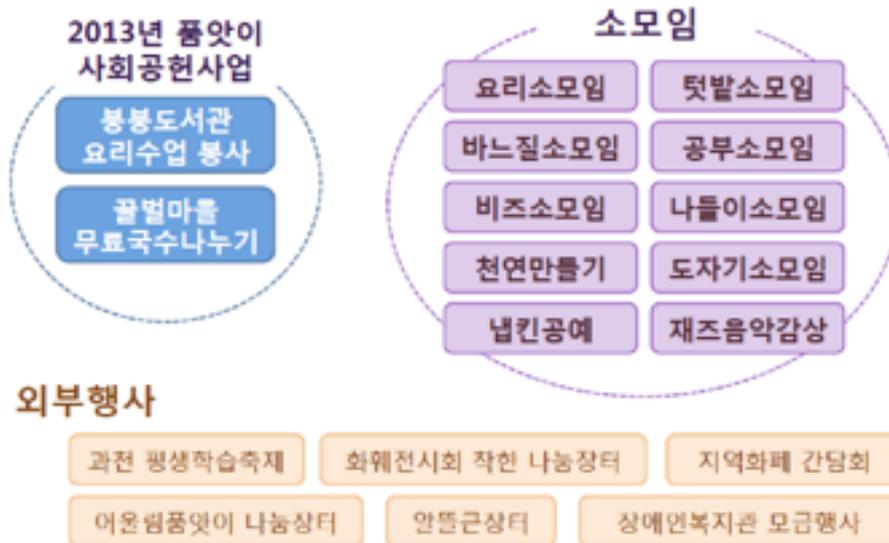
지역화폐 실험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누구 어느 공동체도 성공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요. 국내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경우도 실상을 보면 성공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화폐는 도구일 뿐. 그걸 활용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집중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맞지 않는 도구일 수 있고, 지금이 때가 아닐 수도 있으니 느긋하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 일 나는 것 아니잖아요? 오해와 갈등이 좀 생기더라도 무관심보다는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다만 즐겁게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험은 실패해도 실험과 실패를 함께한 사람들은 남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하지 않은 실험을 하고 누구도 하지 못한 실패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또 어떤 측면에서 분명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건투를 빕니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해방촌 사람들 모두 화이팅!

아리분과

.3년도 총거래 건수 대 품목 비율



행사분과



과천품앗이

1. 과천품앗이는

2000년 10월에 과천 지역주민의 의해 창립되었고 14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과천 품앗이는 현재 152명 (2014년 6월) 회원들이 대안 화폐 ‘아리’를 매개로 품과 자원을 거래하는 현대적인 도시 품앗이입니다. 전통적 품앗이 정신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동체를 지향하고 신뢰와 나눔의 정신을 실현 합니다

2. 과천품앗이 아리는

과천품앗이가 사용하는 화폐 ‘아리’는 과천시의 상징나무 밤나무에서 밤 한 알, 알 을 풀어 아리’로 이름 지었고, 그 가치는 한 시간 노동의 가치는 1만 아리로 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기 돌보기 1시간 제공한 것과 수학 학습지도 1시간 제공한 것을 똑같이 1만 아리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노동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천 품앗이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모든 노동은 동등합니다.

아리는 통장에 숫자로 존재하는 것으로 회원 간 품 거래 후, 수기로 각각 통장에 기록하고 확인 서명을 통하여 인정됩니다. 또 개인별 통장의 내용은 온라인 카페에 보고하여 전체거래가 확인됩니다.

3. 과천품앗이에는 어떤 품들이 있는지

과천 품앗이에서 나누는 품목은 아주 다양하며,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활동이 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심부름, 가사노동, 이 미용, 학습지도, 취미활동모임, 음식제공, 육아. 번역, 아나바다, 수공예품, 수공예지도 등 매우 다양하며 애완동물 맡아주기, 모임 장소 제공 등 새로운 품이 생겨나고 환영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중 일반 상가, 병원 등 가맹점 등록으로 일정수준의 아리로 현금일부를 대신 적용해 줍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품은 학습, 아나바다입니다.

4. 과천품앗이의 소모임은

과천품앗이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회원 간의 소통, 지역 활동 참여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과천품앗이 운영방법은

과천 품앗이는 온라인 카페 “www/cafe/daum.net/poomasi” 에 회원 거래, 동정, 소모임 등 모든 내용이 기록되고 운영되며, 오프라인 모임(월례회)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이러한 모든 운영을 위해 회원 중 자원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모임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운영위원 체계로 변경하여 운영되는 품앗이는 각 분과단위로 사업을 기획, 진행, 보고까지 하고 있



어 운영위원장은 각 분과가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돕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6. 과천품앗이의 의의

제한적이지만 경제적 혜택을 얻고 또한 경제력을 발휘하는 장입니다.

이웃 공동체 문화 확산 기여 합니다.

회원들은 품의 제공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기회 제공합니다.

자원거래를 통해 재사용의 횟수 증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친환경적인 삶 공유합니다.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기존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7. 과천 품앗이 선언문을 소개합니다

과천 품앗이는 많은 이웃이 만나 서로의 삶을 도우며 생활을 나누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과천 품앗이는 친환경적인 건강한 삶을 이루어나갑니다

과천 품앗이는 회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래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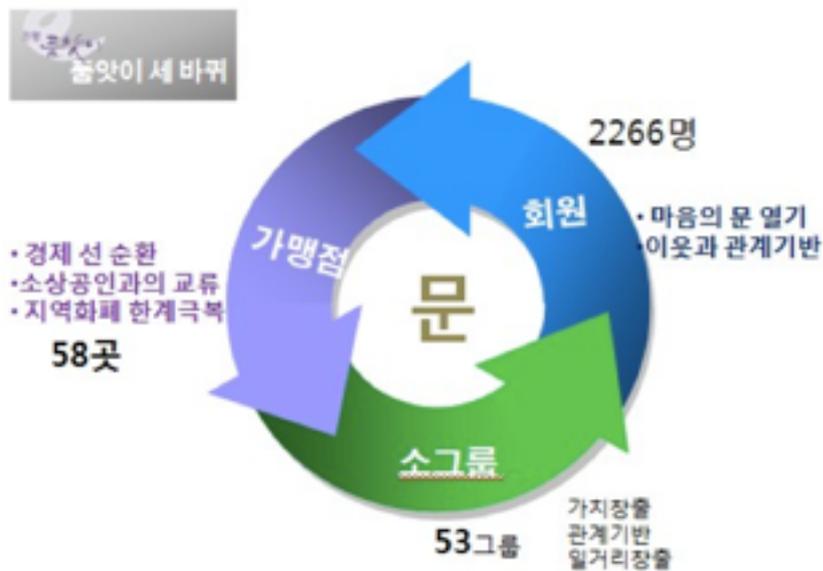
과천 품앗이에서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모든 노동력은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과천 품앗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잠재능력을 개발합니다.

은평 e 품앗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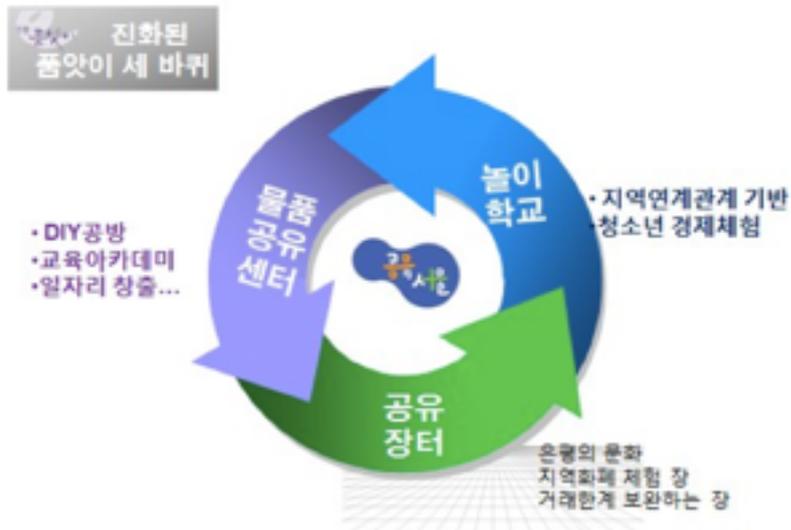
따뜻한 돈 "지역화폐"

2011년 5월부터 은평e품앗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시작으로 이웃의 문을 열었고, 모여진 사람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은평지역안에서 지역화폐를 매개체로 경제 선순환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정을 나누던 두레와 계와 같은 품앗이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므로 가상의 사이버머니와 같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므로 정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도입한 것입니다. 처음엔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고 지역화폐(문)를 사용하므로 회원을 모으고, 그 회원이 직접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점을 품앗이 가맹점으로 만들어 병원으로 비롯해 안경점, 음식점, 생활용품점 등.. 10%~ 30%의 지역화폐를 받아 다자간 경제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안에 잠자고 있는 공간과 재능, 물건을 찾아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이 오고가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지금은 회원2,266명과 재능나눔 53개, 가맹점은 58개로 확장되었습니다.



품앗이를 통한 지역화폐 경제체험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놀이학교"를 진행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공유장터" 행사로 정기적인 만남을가져 이 시간을 통해 아끼는 물건이지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과, 고쳐서 사용해야할 집기들을 가지고 나와 수리해 가며, 소그룹 재능을 통한 장기자랑과 가족과 함께 스포츠게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장터를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생활용품, 전동공구를 빌려 쓸 수 있는 "물품공유센터"를 통하여 불필요한 돈의 낭비를 줄이여 가정경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이 세상을 작은 단위에 은평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본은 관계와 신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품앗이는 그자본의 문을 열어주는 "이색경제 놀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자신속에 잠자고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어 경제가치와 연결시켜주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해서 경제순환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나눔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능력이 서로를 공유하도록 돕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